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5월 6일(금)

(윤력 4월 6일)

Пятница

6 мая 2022г.

№ 17 (1198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9일은 대조국전쟁 종전 - 승리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불멸의 연대> 행진.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친애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승리의 날을 맞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자 강력한 적을 쫓기 위해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눈물과 가슴 속 기쁨으로 이날을 맞이합니다.

전선에서의 영웅적인 전투와 후방에서 지쳐 쓰러질 정도의 노동으로 4년간은 길고도 험난한 투쟁의 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열과 굶주림을 견디며 자신을 희생했고, 친지들을 잃어도 승리에 대한 믿음과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에 대한 사랑과 단결심은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고, 새로운 성취를 위한 힘을 찾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희생자들 앞에 삼가 머리를 숙이며, 그들에 대한 밝은 기억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용기와 강인함과 영웅적 업적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일해야 하는지, 우리의 땅과 우리의 친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러시아와 사할린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며, 여러분을 항상 돌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손자들과 증손자들이 조국을 지키며,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 모든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전승 대승리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1년간 수산업자들의 50억 루블리 넘는 세금액, 사할린주 세입으로

지난해 수산업체들로부터 사할린주 통합예산에 들어온 세입이 50억 루블리가 넘었다.

수산업체 종사자들이 세금으로 49억 루블리와 해양생물자원 채취로 2억4천400만 루블리를 납부했다. 총 납부액은 50억 루블리에 달한다.

주 수산청장 이완 라드첸코의 말에 따르면 수산경제산업 발전에 50억 루블리의 개별 투자가 이뤄진 가운데 이 투자금은 해군 함대 복구와 현대화 및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과 현대화 작업, 연어 양식장 건설에 쓰였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총결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연어 인공양식 분야에서 선두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70개의 수산업체들이 전문적 조업을 하고 있고, 연어를 주요 인공양식하고 있다. 양식장의 치어는 총 16억 마리이며, 매해 회귀하는 연어들로 어획량은 3만 톤이 넘는다고 밝혔다.

사할린주에서는 생선 조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약 800개의 기업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 연간 조업 어민은 9천 명에 달하고, 연어 성어기에는 1만2천 명까지도 늘어난다.

조업 어민의 월평균 임금은 11만7천 루블리이며, 생선 가공업자들의 임금은 9만8천 루블리 정도다.

현재 사할린 수산업체들의 총 어획량은 70만 톤에 달하며, 이중 약 90%를 사할린주 수산업연합회 회원들이 조업하는 가운데 연어, 명태, 청어, 대게, 등 사할린 지역의 모든 것을 잡고 있다.

주 수산업연합회 막심 코즐로브 회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합회 소속 수산업체들이 자체 생산 개발을 위해 600억 루블리 이상을 투자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 상황과 제재로 인해 수산업 분야에서 주 예산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단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오는 5월 10일(화)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다. 한국 언론 매체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 규모는 4만1천 명 규모로 확정됐고, 취임식에 드는 예산은 약 33억 원이다.

1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마당에서는 다양한 식전 행사가 진행된다.

오전 11시쯤 윤 당선인이 도착하면 취임식 본식이 시작되어 1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용산 집무실 시대 개막을 알리는 단출한 기념행사와 국내 주요 인사·외빈을 위한 경축 연회 등이 진행된다고 전해졌다.

'러시아의 국경' 의료봉사팀 쿠릴에서 진료

'러시아의 국경' 제23회 의료 및 계몽 의료자원봉사단이 5월 4일(수) 쉬코탄 섬 지역병원인 유즈노쿠릴스크 중앙 지역 병원 분원에서 주민 진료를 개시했다.

의료자원봉사 활동은 '기드로스트로이(수소산업)' 회사와 안드레이 페르워즈완니 재단에 의해 조직되었다. 가장 필요한 14개 과목 - 심장학, 유방 종양,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내분비학과, 류머티즘학, 내과, 소음과 - 의 의료진과 의학박사, 병원장의 고품질 진료를 5월 10일(화)까지 쉬코탄 섬에서 진행하고 이후 이투루프 섬으로 떠난다.

'러시아 국경' 의료자원봉사단의 활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대규모 의료자원봉사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이전과 다른 점은 성인 및 소아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 '러시아의 국경'에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체복사리, 툴라, 유즈노사할린스크 진료센터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의료자원봉사단의 활동은 무료이다.

사할린, 아빌림픽 지역 단계 진행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들의 전문 기능에 따른 제7회 '아빌림픽' 선수권대회 지역 단계 폐막식이 5월 4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톨리짜' 비즈니스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총재가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선수권대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티몹스코예의 7개 행사장에서 열렸는데 이는 기술전문학교, 보충교육기관, 주 교육기관 등이다.

경기에 학생, 대학생,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는 '아빌림픽' 장애인 전문 기능인 국가 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을 위한 선발 단계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아빌림픽' 준결승전은 6월에 원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5월 9일은 전승기념일

대조국 전쟁 참전자로 소련의 영웅 칭호를 받은 민 알렉산드르

5월 9일은 소련 및 러시아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다. 1941-1945년 대조국전쟁 전승기념일이다. 구소련 시절 이 전쟁에 희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친지, 친구 모두가 전쟁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다.

100여개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구소련을 이 전쟁에서 모든 민족들이 지키려고 했다. 이 나라를 정착지로 택한 고려인들도 그랬었다. 1937년에 스탈린 명으로 중앙아시아로 추방을 당한 고려인들은 사실 대조국전쟁 때 전장에 나갈 기회가 드물었다. 자기 이름으로 전장에 갈 수 있는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말고 주로 러시아 서쪽에 거주했다.

새고려신문에는 '소련의 영웅'이라는 최상위의 칭호이자 가장 높은 훈장을 받은 대조국 참전자 민 알렉산드르 파블로위치를 이미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번 호에는 다시 이 영웅을 기리기로 했다.

구소련에서는 대조국전쟁 고려인 참전자들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책은 2011년에 모스크바에서 출간된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의 소련 고려인들>이란 책(저



자: 신 드미트리, 박 보리스, 최 발렌틴)이다.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기자는 또다시 이 책을 펴보았다.

민 알렉산드르는 1915년 12월에 프리모리에 변경 스코토히 구역체-산-도 농촌 9남매의 농민가정에서 태어났다. 얼마 후 가족은 같은 지역 푸짜핀 섬으로 이사갔다. 1933년-1936년간 알렉산드르는 원동국립대학교(현 극동연방대학교) 노동학(예비과)에서 공부했다. 1936년 7월에 대학을 졸업한 후 푸짜핀 섬으로 돌아와 제2호 조선학교에서 러시아어 교사로 활약했다.

1937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카자



민 대위의 묘지. 우크라이나 월린스크 주, 쭈리이스크 지구, 루코브 마을.

흐스탄의 아랄스크 시에 강제 추방당했다. 이곳에서 어업과 관련 분야에서 잠시 일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사라토프 시로 떠났다. 사라토프 신웅경제대학에서는 1938년 9월부터 1941년 5월까지 공부했다.

1941년 5월 24일에는 군대에 징집되어 전쟁이 시작되자 민 알렉산드르는 건설대대에 복무하면서 모스크바 방위전에 참가했다. 나중에 라잔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젊은 장교들은 짧은 기간 내에 훈련을 받아야 했다.

민 알렉산드르는 중앙아시아에 남은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했다. 그가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 몇 통이 남아있는데 편지 내용에는 이들에 대한 사랑, 배려, 그리움 등을 질게 표현하고 있다. 사라토프 대학에 간 후부터 가족과 헤어져 있어 거의 모든 편지에는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자주 쓰여 있다. 현재는 그의 8명의 남매 중 형, 누나, 동생 누구도 생존에 있지 않다.

1942년 가을에 소위 과정을 수료한 그는 제 132 저격사단 제 605 저격연대 제 1 저격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다.

1943년 7월 5일 쿠르스크 전투 당시 4번의 독일군 역습을 격퇴하여 적성훈장을 수훈 받아 해당 연대의 보좌관에서 지휘관이 되었고, 대위로 진급했다.

1944년 1월에 제 605 저격연대의 대대장으로 임명된 민 알렉산드르는 1944년 7월 4일~5일간 코렐리 시가전에서 대대를 지휘해 독일군의 역습을 5번 격퇴하고 퇴각하는 적을 추격해 스타리케 코샤리 마을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1944년 7월 9일에 그는 파로두비 지구에서 독일군 전

선을 돌파하다가 전사했다.

이듬해 3월 24일 레닌훈장과 소비에트 연방 영웅 칭호가 추서되었다.

민 대위의 수훈 목록에는 알렉산드르 넵스키 훈장, 조국 전쟁 훈장 1급, 조국 전쟁 훈장 2급도 있다.

민 알렉산드르의 유해는 우크라이나 월리니 주 투리이스키 구역에 있는 루코브 마을의 무명용사 묘지에 묻혔다.

현재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로보노예 중학교에 그의 흉상이 세워져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아쿨간 시 공원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렇게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의 소련 고려인들>책을 비롯해 인터넷의 여러 정보를 인용하여 젊디 젊은 26세의 나이에 전사한 소련의 영웅 민 알렉산드르에 대한 기억을 다시 기린다.

대조국전쟁이 끝난 지 77년이 지났다. 생존해 있는 전쟁 참전자는 거의 살아남지 않았고 노동전선 참가자도 많이 돌아가셨다...

그 어느 때든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고 평화를 기대하고 기원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브레이크댄서, 하바롭스크에서 금메달 획득·'아시아의 아이들'에 출전

사할린 선수들이 4월 30일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브레이크댄스 지역 오픈 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종합 경기 종목에서 사할린의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이 경기의 주요 목표는 메달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 '아시아 아이들'의 출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에 극동 전역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출전권을 두고 경쟁을 치렀다.

'아시아의 아이들'은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비보이즈 커넥션(Bboys connection)브레이크댄스 스쿨의 학생인 사할린의 비보이 세르게이 그리고리예브(15세)가 이번 대회를 통해 사할린 지역 대표 출전권을 따냈다. 하바롭스크 경기에서 세르게이는 <14세-15세 청소년(남자)>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고, 극동 연방관구 선발팀에 합류하게 됐으며, 마가단주에서 온 빅토리아 고스체와는 <14세-15세 청소년(여자)>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세르게이와 함께 선발팀에 들어갔다.

우승한 선수의 사범인 세르게이 크랍첸코의 말에 따르면 세르게이 그리고리예브는 지난 한 달간 하바롭스크 대회 출전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준비해왔으며 7년째 브레이크댄스를 배우고 있는 그는 국제적 수준을 비롯해 다양한 수준의 경기에 꾸준히 참가해 우승과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했다. 곧이어 세르게이는 2021- 소치 오픈기획 국제 다종목 스포츠의 일환으로 열리는 댄스스포츠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이번 경기는 소치가 아닌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르게이 그리고리예브 외에도 다른 사할린 선수들도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

Сахалинский брейкдансер завоевал в Хабаровске золото и путевку на "Детей Аз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ривезли семь медалей с открытых краев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брейкингу, которые прошли 30 апреля в Хабаровске. В общем зачете наши ребята завоевали 2 золотые, 3 серебряные и 2 бронзовые награды. Главной целью этих состязаний были не только медали, но еще и путевк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За нее боролись спортсмены со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ети Ази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 27 июня по 8 августа. 15-летний сахалинский би-бой Сергей Григорьев, воспитанник школы брейк-данса Bboys connection, завоевал право представлять наш регион в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Хабаровске Сергей взял золото в номинации "Юноши 1415 лет" и обеспечил себе место в сбор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месте с ним в сборную попала Виктория Гостева из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явшая перв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Девушки 1415 лет".

Как рассказал тренер победителя Сергей Кравченко,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в Хабаровске Сергей Григорьев интенсивно готовился весь последний месяц. Брейк-дансом парень занимается уже 7 лет, он регулярный участник, призер и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ов самого разного уровня,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коро Сергею предстоит выступление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танцевальному спорту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ультиспортивного проекта Sochi Open — 2021. На этот раз они пройдут не в Сочи, а в Москве.

Кроме Сергея Григорьева порадовал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и другие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사할린의 어린 사자들'이 맞춤형 하키 축제에서 경험을 쌓다

사할린의 슬레지-하키(파라 아이스하키) 팀 '사할린의 어린 사자들'이 소치에서 열린 제 4회 전국 하키 패밀리 페스트(Hockey Family Fest) 맞춤형 하키 축제에 참가했다.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한 대규모 슬레지-하키 경기에 사할린 팀이 두 번째 참가했다.

이번에 열린 축제에 30개 지역에서 47개 아동 팀들이 모였는데 경기 참가자는 600여 명이고 학부모, 가족, 코치(이들 모두 팀의 구성원)를 포함하면 참가 인원은 1000여 명이 넘는다.

'사할린의 어린 사자들'팀은 제4회 하키 패밀리 페스트 전국 맞춤형 하키 축제의 제2 분단 팀 경기에서 8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가장 잘하는 아동 슬레지-하키팀들 중 한 팀과 경기를 치르면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추억과 정서, 새로운 경기 경험을 얻었다. '사할린의 어린 사자들' 팀이 경기에서 보여준 중요한 것은 하키에 대한 사랑과 팀 단결력, 난관을 극복하려는 놀라운 끈기였다.

사할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슬레지-하키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볼 수 있는데 팀 훈련은 '아레나 시티' 종합 빙상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Сахалинские львята" набрались опыта на фестивале адаптивного хоккея

Детская следж-хоккейная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ие львята" выступила на IV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естивале адаптивного хоккея Hockey Family Fest в Сочи. В крупнейшем турнире по следж-хоккею для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о второй раз.

В нынешнем сезоне фестиваль собрал 47 детских команд из 3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600 игроков, а с учетом родителей, членов семей и тренеров (все он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 тоже составная часть команды)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превысило 1000 человек.

"Сахалинские львята" заняли 8 место во II дивизионе IV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адаптивного хоккея Hockey Family Fest. В борьбе с одними из самых ярких детских следж-хоккейных команд России они получили неоценимый опыт. А еще новых друзей, новые впечатления и эмоции, новые игровые навыки. Главное, что показ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львята" на турнире — любовь к хоккею, командный дух и невероятное упорство к преодолению трудностей.

Напомним, что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следж-хоккее на Сахалине могут дет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 тренировки команды проходят бесплатно в ледовом комплексе "Арена Сити".

<체호비아나> 대회 대상, 포로나이스크 청소년들 수상

<체호비아나(체호브의 작품 및 그에 대한 연구)> 유·청소년 경연대회의 오랜 결과로 '육차브리'영화관 홀에서 열린 <체호비아나> 시상식에서 우승자가 발표되었다.

올해 몇 달에 걸쳐 진행된 이 경연에 400명 이상의 교사들과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우승을 위해 경쟁을 치렀다.

시상식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사업부의 노나 라브리크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한 가운데 지역으로서 '체호비아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승자인 포로나이스크 아동예술학교에 우승컵을 수여했다.

이 경연의 우승자는 44명으로 이 중 22명의 수상자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올해 <체호비아나>경연이 25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사할린주 전 지역에서 사실상 1500명 이상이 참가했다. 몇 달에 걸친 경연에 교사들과 학생들은 <체호브의 작품을 읽으며> 낭독, <학교 연극무대에서 체호브 작품의 주인공> 각색, <체호브 작품의 페이지를 따라> 그림, <보물섬> 지역 향토 보드게임에 참가했다.

(8면에 계속)

주 한인협회,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마련

지난 4월 3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 한인 어르신 약 70명을 모신 가운데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동포 1세들을 위한 노인 휴식센터(노인장, 경로당) 개관식을 가졌다.

1세분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올린 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5년 전에 어르신들이 한인문화센터 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리모델링된 의료상담실과 어르신들의 휴식을 위해 새로 생긴 노인정은 어버이날을 맞아 마련된 선물이다."라고 하였다.

주 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은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님 생각한다고 하며 어르신들에게 이날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노인회관 개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쉼터가 즐거운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기원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렸다.

이날 어버이날 축하무대는 <에트노스> 아동예술 학교 무용단들의 우아한 춤, 할머니 무용단, k-팝 댄스를 한 '플로 모우션'팀,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최 율리아, 서 마리나, 오 블라디미르 등 가수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정성껏 차려진 잔치상에 앉으신 어르신들은 흐뭇하게 이 공연을 즐기며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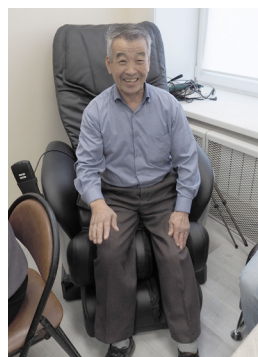
한인문화센터 1층에 마련된 노인휴식센터 개관식은 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박상태 소장, 노인대표 권경자 선생님의 테이프 커팅으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휴식센터에 입장한 어르신들은 이 장소에서 후식으로 떡과 차, 과일을 드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전 한국어 교사 권경자 어르신은 이날 노인대표로서 노인들에 대한 꾸준한 배려에 대해 주 한인협회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들을 위해 박상태 소장은 이날 어머니에 대한 노래 한 곡도 들려주었다.

박순옥 회장에 따르면 주문된 장비와 가구가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어르신들의 모임은 6월부터 시작하고, 모임은 매주 토요일에 열리며 진행은 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가 담당할 예정이다.

어버이날 행사, 노인휴식센터 개관식도 주한인협회와 청년협회 주최 아래 진행되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봄과 노동의 날 기념

지난 5월 1일 봄과 노동에 날에 사할린에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오랜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 행진도 진행됐고 많은 공연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주정부와 시행정부 인사들이 시민들에게 축하했다.

(사진: 주정부 제공)



사할린에서 전 러시아 군애국주의 행사 '추모의 초소' 개최

5월 6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국 군애국주의 행사 개최를 위한 모임이 열린다. 행사는 '슬라와(영광)'광장에서 13시에 열리며, 기념행사에서는 정부 및 군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대표자들이 불멸의 성화에 헌화식이 있다.

'추모의 초소'의 주요 과제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장병들의 유해 및 유품을 탐색하고, 유해를 모시며, 전몰 장병들의 이름을 찾고, 친지들에게 유품을 전달하는 일이다.

이번 시즌에 사할린의 활동가들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 5월에는 국내 16개 지역에서 60여 명의 조사단원

이 모이는 <극동 전선> 지역 간 탐색 조사가 시작된다.

'러시아 탐색 운동' 활동가들은 2주간 스미르니흐 숲에서 탐색 작업을 벌이고, 6월 말에 사할린 조사단은 소비에트 전몰 장병 100명 이상이 발견된 숲수림을 탐색하러 떠난다. 전통적으로 이 행사에 국가기관들, 탐사 작업 및 청년 애국교육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대표들이 참가한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탐사 활동의 발전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몰한 장병들을 영구히 기억하도록 작업을 실시하는 사회적 연맹과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PD의 K 리포트]

안젤리나

어느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다음주 수업을 하십니까?' 억양이 약간 이상해서 확인하니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학기 초라 아직 학생들을 하나하나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업 중에 이미 휴강을 공지했는데 왜 또 질문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야단치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것에 '선생스러운'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휴강이라고 말했는데, 못 들었나요?' 학생이 당황했는지 '죄송합니다'라고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말이 서툴러서 이해 못한 것일텐데 너무 심했나 싶어 바로 후회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15만 2천 명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0.9% 줄어 들어서 이렇습니다. 2011년 8만 9천여 명과 비교해 10년 사이 거의 2배 증가입니다. 해외로 유학 나가는 한국 학생 수 15만 6천 명(2021년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유학 선호가 뚜렷합니다. 해외로 나가려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묘한 자부심도 듭니다. 대학에서 10여 년 강의를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증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고나제 안나, 마림, 장황, 증시여, 게이코, 악푸날 제렌, 안젤리나 살와, 키리깨우 편마니, 황깁승언.....' 그동안 제 수업을 수강했던 외국인 학생들 중 기억나는 이름만 나열해도 이렇습니다.

유학생들의 '한국 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가장 큰 장벽입니다. 국내 대학 어학당에서 1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지만 대학교 수업을 듣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은 배우기 까다로운 언어 중 상위급입니다. 언어가 어느 정도 극복된다 해도, 몸에 익숙한 자국 문화와 머리로 익힌 한국 문화의 충돌로 심리적 갈등도 생깁니다. 의도와 다르게 이상한 행동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뭔가 모를 차별감도 느껴집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강의실에 같은 나라 학생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강제로 어찌할 수는 없고 조별 학습을 할 때에 일부러 섞어서 짜주지만 효과가 별로입니다. 비싼 등록금과 한국의 높은 물가를 생각하면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안쓰러움이 더해집니다.

저 역시 미국 유학 시절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영어를 공부했으니 의사소통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마음고생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현지인 학생에게 뜻없이 건넨 농담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고, 영어는 알아들었지만 그 말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와 갈등을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파티 모임에서 낯선 사람에게 말붙이기는 왜 그렇게 어렵던지요. 누군가 말을 걸어주리라 기대했지만, 잔뜩 긴장한 얼굴로 있던 제게 편하게 접근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학시절 초반, 즐거운 '광란'의 시간이 됐어야 할 파티가 제게는 식은땀 나고 수없이 '이불킥'해야 했던 민망한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자녀를 한국에 유학보낸 동포분들이 많으실텐데 어떠신가요? 가족과 고향을 떠난 아들 딸이 낯선 환경에서 잘 지낼까 하는 걱정도 마음 졸이고 게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유학생들이 성공적이라고 조언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가 가르쳤던 안젤리나를 소개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그녀의 한국 유학 생활에서 바람직한 케이스를 함께 찾아보시죠.

안젤리나는 팔레스타인에서 왔는데, 학부 유학생 1호입니다. 석사, 박사 하러 한국에 온 팔레스타인 학생은 전에도 있었지만, 학사 과정으로는 안젤리나가 처음입니다. 안젤리나를 2018년 <멀티미디어 제작> 과목을 가르치면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썩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예 기획사 인턴에 지원했다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떨어졌던 경험도 있다고 하니 그 수준을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젤리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기 초에 조편성을 합니다. 조 단위 과제 수행을 위해 학생 몇명을 그룹으로 묶습니다. 늘 그렇듯 여기에는 조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장을 뽑고, 그 조장이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 각 조의 조장들이 번갈아 발표하는데 모든 조장들이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젤리나가 속한 조의 조장은 다름아닌 안젤리나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내용을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안젤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조장을 하게 되었느냐고.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손들었어요'

안젤리나는 시민 대상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도 참여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 시민들에게 영상 편집을 가르친 것이죠. 방송국에서 외국인을 인터뷰하는 리포터를 했고, 또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 도전해서 2등상을 받았습니다. 안젤리나에게는 '격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화차이 때문에 다른 유학생들처럼 혼란과 갈등을 겪었을텐데도, 제가 보기엔 그 모든 것을 즐겁게 이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표정에 그들을 보인 것은, 자기 조국 팔레스타인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얘기할 때 뿐이었습니다.

안젤리나는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고향의 동포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의 그 활발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댄백 댄아서겠죠. 안젤리나에게는 언어 장벽도, 문화 차이도, 갈등의 경험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특한' 안젤리나를 모범적인 유학생이라고 하면 자녀들은 잔소리처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겠습니까.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보면 안젤리나는 한국 유학생활을 정말 잘 해낸 걸요.

신원섭 (KBS 라디오 제작국장.shinwonsup@kbs.co.kr)



9 мая – День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Живи на свете долго, ветеран

Уходят в небо наши ветераны,
Уходят тихо на закате дня
Лишь остаются как наследство раны,
Среди гвоздик у Вечного огня

Припев: Живи на свете долго, ветеран
Наперекор всем тяготам земным,
Ведь без тебя для многих россиян
Твой день победы станет чуть иным

Бросали вас безусыми бойцами
В крошечный ад, где плавилась броня
И тот, кто выжил, мысленно ночами,
Всё павших ждёт у Вечного огня

Припев: Живи на свете долго, ветеран
Наперекор всем тяготам земным,
Ведь без тебя для многих россиян
Твой день победы станет чуть иным

Стоит солдат под майскими лучами,
Войны лицо неженское храня
В своей груди и мирными руками
Нас единит у Вечного огня

Припев: Живи на свете долго, ветеран
Наперекор всем тяготам земным,
Ведь без тебя - для многих россиян
Твой день победы станет чуть иным

Живи на свете долго, ветеран
Наперекор всем тяготам земным,
Ведь без тебя для многих россиян
Твой день победы станет чуть иным
14.05.2011г.,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ЭХО Чан.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Заверш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последний месяц 1-го полугодия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вечно в памяти народной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овесть о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лександре Павловиче Мине

Автор выражает искренню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за помощь в сборе материалов о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лександре Павловиче Мине брату Героя Николаю Павловичу Мину, супругам Елизавете Павловне Кан и Геннадии Ивановичу Ли (г. Джамбул), следопытам Луковской средней школы (Волынская область, Украина), сотрудникам Центрального архи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г. Подольск).



Прошло более столети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ши предки покинули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 Корею и оказались в русском Приморье.

Прошло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после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вы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одившейся политик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шему народу трагически сложилась судьба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епрессивная политика, проводившаяся в 30–40-х годах, уничтожила лучших сыновей и дочерей. В полный упадок пришли культура, язык и традиции.

На основании особ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корейцев — офицеров высшего, среднего и рядового составов — увольняли из рядов Красной Армии и до 1952 года не призывали в ряды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И все же, несмотря на репрессивную политику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корейские трудящиеся проявили массовый трудовой героизм в тылу во время войны. Они вносили личные сбережения в фонд обороны. Т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лхоза «Северный маяк» Цой Сергей внес один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а механизатор колхоза «III Интернационал» Лим Павел — более 303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амолета, было много и других примеров. Десятки тысяч юношей, ушедших в трудовую армию, не вернулись из Якутии, Коми АССР. Сотни юношей ушли в действующую армию, скрывая свою нацию. Один из них, не изменив свою фамилию и не скрыв свою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совершил героический подвиг. Это был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П. Мин.

Эту документальную повесть автор В.Д. Ким рассказывает на основании документ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архи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музея истории города Рязани, клуба «Следопыт» Луковской средней школы Волынской области Украины, Джамбуль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а также документов из личного архива и полученных от брата А.П. Мина.

Книг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беспримерном подвиге Александра Мина — пока единственного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 сегодня, спустя десятилети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мы с душевным трепетом и волнением знакомимся с его героическим подвигом.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овесть будет иметь большое воспитатель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Генерал-майор авиации П.П. КИМ
г. Ташкент

Светлой памяти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ушедших на фронт под видом других наций и народностей, павших смертью храбрых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Всем безымянно погибшим в Коми АССР и Якутии корейским трудармейцам посвящается эта повесть

Давно отгремели последние залп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унесшей миллионы человеческих жизней. Война поселила в миллионах сердец неизбывную боль на всю оставшуюся жизнь от утраты близких — отца, сына, мужа, брата.

Давно отгремели последние залп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о раны, нанесенные ею, рубцуются медленно, напоминая нам о тех, кто отдал жизнь ради Победы над фашизмом. Жива всенародная ненависть к фашизму и любовь к Родине. Наш народ победил врага ценой более чем 20 миллионов жизней своих лучших сыновей и дочерей.

Особенно сложной и запутанной оказалась в тяжелые военные годы судьба детей-корейцев.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из рай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республики Средней Азии корейцы не могли быть призваны в ряды защитников человечества от фашизма; их не брали в действующую армию и добровольцами. Но молодые горячие сердца рвались туда, где решалась судьба народов почти половины земного шара. Патриоты искали обходные пути, чтобы попасть на фронт. Одним из таких героев был Александр Мин.

Александр Павлович Мин родился в 1915 году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селе Чер Сан-До Шкот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крестьянской семье. Затем семья переехала на остров Путятин того же район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школы Александр

уехал на учебу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где поступил на рабфа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торый окончил в июле 1936 год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рабфака он вернулся на остров Путятин, где проработал с августа 1936 по 1937 год, вплоть до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вы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Он был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Путят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начальной школе № 2. В 1937 году со все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он был выселен в Казахстан, в город Аральск. Здесь ему пришлось работать в рыбном тресте. В 1939 году он снова уехал учиться — теперь в Саратов, поступил в Саратовский кредит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24 мая 1941 года он был призван в ряды Красной Армии из города Волжска Сара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правлен учиться в Рязанское пехотное училище.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война, молодых командиров стали обучать в самые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После ускоренного курса обучения он получил звание лейтенанта и был направлен в действующую армию. На фронте А. Мин командовал сначала взводом, потом — стрелковым батальоном. С фронта он писал родственникам — родителям, братьям, сестрам. У Александра было шесть братьев и две сестр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живых не осталось никого. Мать героя Де Ге-Хва жил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Средне-Чирчикском районе, в селе Тойтуба (по улице Ворошилова, дом № 39). Она скончалась в 1959 году. Сохранилось несколько писем Александра Мина к родным. Сегодня эти незамысловатые строки с обратным адресом «Полевая почта ...» нельзя читать без волнения.

Полевая почта 866, в/ч 438, 7.XI.1942 год.

Здравствуй, любимый брат Саша. Во-первых,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праздником 25 годовщины Великой Октябрь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волюции, привет из далекого края, от маленького братишки. Мы празднуем хорошо, все по-военному, ведь знаешь, я нахожусь на передовой, которая от меня находится на расстоянии 400–500 метров. Все хорошо и отчетливо видно. Я ходил в разведку за языком. Привел трех немцев. Эта операция была не совсем успешной, в этой разведке мы потеряли своих боевых товарищей, двоих ранили. Сейчас мы стоим на обороне. Передаю фронтовой привет Чан-Хо, Павлу, Николаю, маме, тете Вере и Кате, Илюше и другим. До свидания. Твой брат Мин А.П.

16 ноября 1942 года.

Здравствуй, Саша. Первым долгом сообщаю тебе, что я жив и здоров. Жизнь протекает прекрасно, того же я желаю и тебе. Сейчас опять готовимся к новой тяжелой разведке, захвату контрольного пленного. Это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о, я надеюсь выполнить эту поставленную перед собой задачу.

Теперь позвольте узнать о вашей жизни. Как живет твоя Катя, мать, тетя Вера, брат Николай, Чан-Хо? Как их здоровье? Хорошо ли поживают? Я в прошлый раз тебе писал о том, чтобы ты дал мне адрес брата Чан-Хо. Кроме того, призывают ли корейцев в Армию? Да, Саша, тебе, на имя брата Павла, высылаю денежный перевод на сумму 1500 рублей, по получении перевода немедленно мне напиши письмо по адресу: 866 полевая почта, в/ч 35, Мину А.П. Передай привет всем-всем моим товарищам и знакомым. Как живет Оксана? Передай ей привет. На этом заканчиваю. С приветом твой брат Мин А.П.

21 ноября 1942 года.

Здравствуйте, Саша, родные. Шлю Вам искренний фронтовой привет. Сообщаю, что я жив и здоров. Получили ли Вы мой денежный перевод на сумму 1500 рублей? Если не получили, то сходите на почту. Почему не пишете? Пишите мне почаще. Как здоровье мамы? Пришлите мне адрес брата Чан-Хо. С приветом твой брат. Полевая почта 866, в/ч 35.

Капитан Александр Мин прошел большой и славный боевой путь. С первых дней войны, тяжелых месяцев отступления, через упорные бои, всегда на самом ударном участке — в батальонной разведке — он без перерывов воевал долгих четыре года. А с родными не виделся и еще дольше — с самого отъезда в Саратов. Но сердцем всегда был с ними, постоянно писал братьям и матери. К сожалению, сохранилось лишь несколько писем.

В последнем письме Александр писал:

Здравствуй, Николай. Шлю тебе искренний фронтовой привет, сообщаю тебе, что я жив и здоров. Письма я от тебя и Чан-Хо получил.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мама жива и здорова. Немцы отступают, но сильно сопротивляются. Скоро выйдем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Я сильно соскучился по вам в течение этих пяти лет. Видимо, еще не скоро встретимся. Берегите маму. На этом заканчиваю. Воздушная тревога. Пишите по адресу: Полевая почта 866, в/ч 35.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з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бнародован список задач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3 м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иёму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объявила 110 задач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 лозунгом «РК делает новый рывок: страна всеобще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Задачи разделены на шесть направлений – политика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сектор, экономика, социальная сфера,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будущее и регионы. Первой задачей является налаживание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выплат част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пострадавшим в результате пандемии COVID-19. Политика по рынку недвижимост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2,5 млн единиц жилья, оптимизацию систем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новых городах, снижение налога на покупку недвижимости. Среди важных задач - отмена политики отказа от ядерной энергетики, упразднение полномочий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по руководству за проведением расследований, пересмотр системы распределения следственных полномочий прокуратуры и полиции. Решено создать комитет по пенс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 целью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истемы.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е предложены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ереговоры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 учётом взаимных интересов, создание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совместного центра оперативной связи двух Корей и США.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улучшить ситуацию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на Севере. В число задач включено обещание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о поэтапном повышении к 2025 году зарплат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 призыву до 2 млн вон (1.580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Комиссия не обозначила в списке задач ликвидац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а также размещ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американских систем ПРО THAAD.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пройдёт в Сеуле 21 мая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и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жо Байден проведут свой первый саммит в Сеуле 21 мая. Они обсудят широкий круг вопросов, включая развитие альянса двух стран,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обле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лючев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прос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28 апреля на брифинге в Сеул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анцелярии избран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Пэ Хён Чжин. Визит Джо Байдена в Сеул, назначенный на 20-22 мая, состоится через 10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Юн Сок Ёль вступит в должность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Джо Байден посетит РК впервые с тех пор, как он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в янва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изит состоится на фоне обострения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сле запуска Северной Кореё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Юн Сок Ёль приветствовал решение Джо Байдена посетить РК, и две страны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канала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успешный визит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отметила Пэ Хён Чжин. Ранее Юн Сок Ёль дал понять, что его главная цель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 укрепить союзн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США, а визит Джо Байдена станет «хорошей возможностью» для «всестороннего укреп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альянса. Джо Байден был первым иностранным лидером, который разговаривал с Юн Сок Ёлем после его избрания президентом РК 9 марта, а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правил делегацию в Вашингтон с письмом дл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Белый дом также объявил о поездке, заявив, что президент США посетит РК и Японию с 20 по 24 мая для встреч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с лидерами обеих стран. В Токио Байден встретится также с лидерами Четырёхстороннего диалога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Quad), возглавляемого США, в котором также участвуют Австралия, Япония и Индия.

В РК приняты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граничивающие полномочия прокуратуры

3 ма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утвердило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поправки в Уголовно-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декс,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е ограничение следственных полномочий прокуратуры. Из 174 депутатов,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на заседании, за поправки проголосовали 164, против 3, воздержались 7.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Мун Чжэ Ин утвердил поправки. Утверждён также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созда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органов юстиции, который обсудит вопрос о создании след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а. Новый орган, как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возьмёт на себя следственные полномочия прокуратуры

В Торонто пройдёт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20-21 мая в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TIFF Bell Lightbox в Торонто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3 мая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К в Торонто Ким Дык Хван.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ено к Месячнику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Азии. На фестивале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пять фильм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ежиссёров – «Побег из Могадишо», «Национальная сборная-2», «Мировой рынок», «Экстремальная работа», «И это моя жизнь». Показы будут бесплатными. Цель фестиваля -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Канаде. (RKI)

«Дядя Ваня» Чехова на разных языках

Весной этого года в кинотеатрах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Сахалине, любители зарубежного кино смогли посмотреть фильм «Сядь за руль моей машины» (《드라이브 마이 카》(ドライブ・マイ・カー)). Эта кинокартина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й и с 2021 года путешествует по всему миру. Режиссером новой киноистории стал Рюсюк Ямагути, в прошлом сделавший ремейк фильма Арсения Тарковского «Солярис». А вот сценарий «Сядь за руль моей машины» написан по мотивам рассказа Харуки Мураками, известного своим интересом к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истории. При этом единожды упомянутая писателем в рассказе пьеса Чехова «Дядя Ваня» в фильме стала важной сюжетной линией.

Главный герой набирает актеров, чтобы во врем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поставить русскую драму. На роли чеховских персонажей в фильме претендуют выходцы из Японии, Кореи, Китая и Малайзии. А одна из героинь и вовсе общается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жестовом языке. «Чеховские строки пронизывают меня и заставляют двигать тело, которое застыло», – так говорит бывшая танцовщица, пережившая тяжелые времена и благодаря русской классике возвращающаяся к жизни.

Ваня, Соня, Елена – эти и другие русские имена звучат в японском фильме. И служат, как думается, определителем того, какое место занимают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наследие Чехова,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и шире – русская духовность – способность заглотить внутрь себя и понять смысл жизни.

Фильм идет почти три часа, и значительное место в неспешном движении сюжета занимают цитаты из «Дяди Вани» Чехова: они звучат и на сцене во время репетиций, и в салоне машины режиссера, а потом и исполнителя главной роли. Конечно, эта пьеса рядовым читателям и зрителям не так известна, как «Вишневый сад» или «Чайка», написанные драматургом много позднее после поездки на Сахалин. Однако сегодня эта часть

чехов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доступна поклонникам кино во всем мире.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благодаря фильму «Сядь за руль моей машины» зрители узнают много чеховских цитат из уст азиатских актеров (часть цитат произносится в фильм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е только широко известны слова доктора Астрова о том, что «в человеке должно быть все прекрасно...», но и другие.

Основное действие фильма происходит в Хиросиме (где, кстати, герои однажды путешествуют по Мемориальному парку мира), а часть знаковых событий на Хоккайдо – в Саппоро и в небольшом прибрежном городке Камидзюнитакэ. Но есть в фильме упоминание о еще об одном городе – Владивостоке. Туда хочет полететь на фестиваль главный герой киноистории – режиссер Юсюк Кафуку. Но попасть в Россию не получается из-за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Рейс на Владивосток откладывается. Финальные минуты кинокартины происходят уже в Южной Корее.

Но прежде, чем завершится фильм, прозвучит монолог Сони ее обращением к дяде Ване о вере в человечность и важность собственной внутренней жизни: «...все зло земное, все наши страдания потонут в милосердии, которое наполнит собою весь мир, и наша жизнь станет тихой, нежною, сладкою, как ласка. Я верую, верую...».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Не хлебом единым

Ростов-на-Дону, 1 мая — ИА РУСКОР

Накануне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активисты Центра сох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Азовского района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Екатерины Ким посетили подшефный пункт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граждан Украины, находящийся в Азовском районе. Своим участием они поддержали культурно - гуманитарную акцию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улинарный десант». В акции также участвовали члены турецкой диаспоры «Ахиско» и народный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район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Приволье». С наступающими праздниками собравшихся поздравили зам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з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лег Феклистов. – «Таким необычным способом, — сказал он, — мы реши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узнать, какие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ли у вас при размещении. Хотим, чтобы отныне этот временный дом, стал теплым и гостеприимным для вас!»

В столовой их ждали столы с блюда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хонь: корейские пареные пирожки — пигоди, рыбное хе, десяток видов вкуснейших салатов, турецкие лепешки пита, берек, запеченные куриные ножки и кебабы, сладкие пахлава и локма...

Но, как говорится, не хлебом единым. Детский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Кым Ган Сан» исполнил танец с веерами и «Лотос», солисты ансамбля «Приволье» трогательно спели русские, украинские и казацкие песни.

Центр сох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Аз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айонного депутата Анатолия Огая решили продолжать шефство над пунктом для беженце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ни постараются выполнить их просьбы и пожелания. А такой формат общения как кулинарный десант станет постоянным. Беженцев пригласили 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рождения район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18 июня в Кулешовке. Там они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Азовском районе. Армянская, дагестанская, турецкая, укра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ы и донские казаки представят свою культуру, искусство, быт, ремесла. И это будет уже не просто кулинарный, а десант дружбы и любви.



Мария Ким (фото автора)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запущено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ыров

Первые партии сыра «Голландского», изготовленного на молокозаводе компании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ла Троицкого, поступят в островные магазины после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С выходом на плановые показатели завод будет ежедневно выпускать до пяти тонн сыров различных наименований.

Современный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создан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и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ль — обеспечи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территории со сложной логистикой. Животных д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возили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Дани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поставщиком племенного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молоч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Сегодня дойное стадо превышает 1700 голов. Коровы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дают пятую часть сырого молока вс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овое суточ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 до 40 тонн. В дальнейшем объемы будут расти.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мпания начала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пастеризованного, сметаны, кефира и ряженки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молокозаводе. И теперь расширяет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первые запущено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лутвердых сыров. Считаю, это большое достижение. Наш регион будет меньше зависеть от поставок еще одной категори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з-за рубежа или из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сыров требуется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ое молоко, которое могут обеспечить только животные с хорошей генетикой, получающие качественное питание. Сегодня мы можем с полным правом сказать,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есть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спользующие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на островном рынке появляется новая вкусная и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ая продукция от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Процесс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утвердых сыров состоит из нескольких этапов. Сначала сырое молоко поступает в цех. Здесь оно нормализуется, пастеризуется и охлаждается, а затем начинается процесс сычужного свертывания. Полученный сырнй стукот или сырное зерно укладывают в специальные контейнеры, которые придадут будущему сыру привычную круглую форму. Контейнеры уходят под пресс, который выжимает из содержимого лишнюю влагу. Далее уже сформированные сырнйе головы н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отправляются в солевую ванну. А после — долгий процесс созревания при постоянной температуре в 11 градусов и 85-процентной влажности. Он может занимать до 60 суток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нкретного рецепта.

— Производство сыра — это, конечно, искусство. 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ый продукт, нужно обеспечить несколько составляющих. Главное, это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исходного сырья. Мы не собираем молоко от различных хозяйств. Пользуемся только тем, что дают наши коровы,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под постоянным контролем ветеринаров. Молоко приходит в сырнйй цех по трубам без контакта с атмосферным воздухом, поэтому риск загрязнения минимальный. Оборудование — только самое современное. При этом применяем тради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нашем сыре только тот молочный жир, который дала корова. Никаких искусственных добавок или заменителей. Возможно, поэтому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вкусный продукт. Надеюсь, он понравится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молокозавода Анна Арабская.

Линейка производства сыров от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восемь наименований. Сначала в сахалинских магазинах появятся «Голландский», «Российский», «Сметанковый» и «Гауда». Они уже созревают в специальных помещениях на заводе. Затем в торговые сети начнут поступать «Тильзитер», «Витязь», «Масдам» и «Пармезан».

В четырёх островных школах начал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сего в рамках масштаб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я школьных систем образов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обновят 14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в восьми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совместно с депутатами «Единой России» Евгением Лотиным и Алексеем Плотниковым, а также мэром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ветланой Швеи оценила объём предстоящих работ в школе № 4 села Таранай.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л к обновлению фасада и кровли. Руководств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сделало процесс обновления максимально прозрачным: сам проект рассмотрела родитель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ысказав пожела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и цветовому решению объекта.

— С момента открытия школы, с 1981 года такого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наш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не видело. Здани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ребует серьёзного обновления: зимой нам сложно было выдерживать нужный температурный режим. Поэтому мы возлагаем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не только на внешнее преображение здания, но и на

серьёзную сохранность наше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ресурса, — поделился директор школы № 4 села Таранай Сергей Ким.

Программа «Модернизация школьных систем образования»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В 2022 году предусмотр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зданий 14 школ в 8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Для нас важно, что эта программа не только и не столько ремонта, сколько обновлени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наших школ. Я искренне убеждена, что это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перезапуска сельских школ. Отд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мы заложили на за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многие школы уже заключили контракты на поставку техники, мебели и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 отмет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Сегодня лидерами по заключённым контрактам на поставку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являются школ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школа № 6 Холмска. Руководство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ожидает поставку мебели для кабинетов и рекреаций,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занятий робототехникой, спортивный инвентарь, оснащение медицинских кабинетов, пищеблоков и столовых.

Свыше 360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и руководящих работников школ-участниц проекта повысят квалификацию по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деятельност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т повышению компетенции в области цифровой грамотности, работы с учащимися, которые имеют огранич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здоровья.

— Мы видим, что федер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охватывает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сельские школы.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сегодня, создавать рав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обучения ребят. С поставками нов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у школьников появя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 считает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Евгений Лотин.

Всего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школ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выше 52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редств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ов.

В 13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будет завершён в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до начала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охинской школе № 1 им. А.Е. Буюклы масштабное обновление строители закончат до 1 декабря этого года. На этот период будут приняты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ка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В заявк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23 год включены 13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70% школ расположены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и малых город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ются советы старших по домам

Активные домоуправы станут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между жильцами своего дома, главой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обла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Совет созда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явится в Долинском и Анивском районах.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серии встреч губернатора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и волонтерам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Проект,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зван улучшить жизн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охватывает сферы медицины,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энергетики, торговли,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С апреля волонтеры обходят жителей по домам, рассказывают обо всех возможностях программы и о том, как им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обровольцы помогают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дключение к газу, получить скидки по карте сахалинца и решают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волнующие людей.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едложил подключить к работе еще и старших по домам. На встрече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в Долинске эта инициатива получила поддержку. Самые активные жильцы 315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района будут объединены в группу.

— Вы лучше всех знаете, чего хотят ваши соседи, и можете продвинуть их интересы. Совет старших по домам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ри мэре. Вы получите прямой выход к руководителям ключевых министерств. Вы сможете доносить просьбы жителей до власти, а мы будем оперативно принимать по ним решения. Выйти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можно, только получая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люде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встрече жители Долинска получили ответы по проекту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тем стало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и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Значительно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ся сервис 1-300: горячая линия стала круглосуточной, в разы увеличилось число операторов, и теперь дозвониться можно за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Телефонный сервис — простой и удобный способ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Оператор видит свободные ячейки в расписании кажд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рабочее время всех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взяли на контроль, количество свободных талонов для пациент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30 процентов. Сахалинцам

открылась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 отложить талон через электронную регистратуру: reg.mz65.ru. Для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ввести номер страхового полиса и дату рождения.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еще продолжается. Губернатор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чтобы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г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к терапевту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к узк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На встрече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волонтер Ан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во время обхода по домам к ней обратился пенсионер, который не может попасть к стоматологу. Раньше мужчина жи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был прикреплен к поликлинике №6, поэтому оператор 1-300 предлагает ему свободный талон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Нужно позвонить еще раз и сказать, что у вас нестандартная ситуация, — отв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 Оператор передаст обращение в кадровый офис минздрава, там в ручном режиме запишут пациента в нужное учреждение.

Жители обратились с просьбой открыть при амбулатории Сокола аптечный пункт, а в сельском ФАПе преду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курс капельниц. По обращениям жителей д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напомнил, чт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у пенсионеров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Углубленн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доступны на базе 15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На встрече затронули и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программы. К примеру, в сфер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редусмотрено около 200 мер поддержки — ими пользуется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70 тысяч человек оформили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банковским «пластиком», но и аналогом документов, и ключом к получению льгот. Более 4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возрасте 55+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ют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роектом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е сети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ов и точек продаж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напрямую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во дворах, социальную газификацию и другие актуаль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ризванные сделать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лучше.

Еще три рай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раздельному сбору мусора

Сортировать отходы начал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и Анив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 Спасибо сахалинцам за созн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экологии.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во дворах активно наполняются, отходы вывозятся на сортировку 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ерерабатываются. До конца года весь Сахалин должен перейти на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а в 2023-ем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Эта работа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ша общая задача очистит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т мусора и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начала 2022 года из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ов вывезено почти 280 тонн отходов, большая часть из них собра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ром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пециальные контейнеры установлены на некоторых площадках в До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Озерском, Троицком и Новотроицком. На остальных адресах емкости появятся в течение года. Он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пластиковых бутылок, флаконов от бытовой химии, стеклянной тары, алюминиевых и металлических банок.

Сейчас отходы, отсортированные жителями, вывозят отдельные мусоровозы на сортировочные комплексы, расположенные на «Известковом» и на полигоне Корсакова. Там работники разделяют отходы по фракциям. Как только собирается товарная партия вторсырья, ее отправляют на материк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переработки.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и Хабаровск на переработку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ли 12 тонн пластиковых бутылок и 20 тонн картона, отсортированных в Корсакове. Эти материалы получат вторую жизнь.

— Внедрение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дет постепенно. Благодарим всех, кто понимает значим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для экологии и здоровья каждого островитянина, кто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сортировку и включился в этот процесс дома. Мы видим, что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все больше людей. Некоторые даже всерьез стали задумываться о жизненной концепции «Ноль отходов»,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ЖКХ Александр Ли.

Специальные контейнеры для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в 2022 году должны появитьс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На 2023 год запланировано оснастить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За два года предстоит закупить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выше 2500 контейнеров.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отходов призван сократить количество выбрасываемых на свалки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ежегодно в России образуется более 60 миллионов тонн такого мусора) и увеличить долю переработк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83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추가 신청 공고문

※ 취소된 제81회('22.4.10.) 응시자는 그대로 제83회에 승계됩니다. 추가 응시 희망자 신청 공고입니다.

1. 실시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2022년 5월 4일 ~ 5월 20일(평일 09:00~17:00)
- 원서 접수 장소: 사할린한국교육원(전화 4242-505-696)
- 원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응시 수수료: (TOPIK1) 1,000루블, (TOPIK2) 1,200루블
- 원서접수 기간 중의 신청 취소, 질병에 의한 사전 취소 시(증빙서류)는 100%환불
- 기타 취소 또는 미응시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 원서 접수 시 준비물: 증명사진 2매(3cm×4cm), 응시 수수료, 신분증
- 성적 발표: 2022년 8월 18일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무료 출력 가능

2. 시험 시행

- 시험 일자 : 2022년 7월 10일(일)
- 시험 장소 : 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한인문화센터 내)
- 시험 시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작	종료	시험 시간(분)	비고
TOPIK I	1교시	듣기/읽기	09:10	09:40	11:20	100	오전
TOPIK II	1교시	듣기/읽기	12:20	12:50	14:40	110	오후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3. 시험 안내

- 입실 시간: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 응시자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 유효 신분증: 여권, ID카드 등(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포함, 유효기간 미경과)
- 응시자 유의 사항
- 듣기/읽기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양면사인펜(시험장에서 배부)으로 작성
- 듣기 시험 중에는 듣기 답안만, 읽기/쓰기 시험 중에는 읽기/쓰기 답안만 작성해야 함
-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시험 수준별(TOPIK I, II) 지원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시험 시행하지 않음
- 접수기간 외 추가접수 불가
- 접수한 시험장 외에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 불가(시험장 변경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할린한국교육원(전화: 7-4242-505-696)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5월 4일
사할린한국교육원장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 한국문화 학습카드' 공개

한국 문화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카드 600개 누리 세종학당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한국 문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교구인 '세종학당 한국문화 학습카드'를 5월 3일 누리 세종학당(nuri.iksi.or.kr)을 통해 공개했다.

세종학당재단은 그동안 한국어 단어카드, 벽붙이 등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세종학당에 지원해 왔다. 이번에 공개한 '세종학당 한국문화 학습카드'는 국내·외 교육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국문화 교구 수요에 부응해 제작한 것이다.

'세종학당 한국 문화 학습카드'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여행지 ▲한국의 음식으로 대주제를 구분해 총 600개로 구성됐다.

'한국의 문화'로는 강강술래, 세종대왕, 찜질방 등, '한국의 여행지'로는 경복궁, 광장시장, 순천만습지 등, '한국의 음식'으로는 갈비찜, 김밥, 삼겹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카드 앞면에는 실물 사진을 넣어 한국문화가 생소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카드 뒷면에는 해당 문화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시해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수업을 위한 24차 분량의 지침서를 제작해 주제별로 한국 문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카드는 누리 세종학당(nuri.iksi.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여전히 국내·외 교육현장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습자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념을 넘어 지켜야 했던 것

영화 <모가디슈>는 30년 전 소말리아 내전에서 함께 살아남은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실화를 생생하게 엮었다. 이념과 체제가 생존의 본능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류승완식 휴머니즘이 파헤쳐진다.

"미라클 작전도 영화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하나."

얼마 전 '미라클 작전'을 지켜보다가 <밀수> 촬영이 한창이 류승완(Ryoo Seung-wan 柳昇完) 감독에게 관련 기사를 보냈더니 '미소'이모진을 덧붙여 돌아온 대답이다.

지난 8월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재점령으로 아수라장이 된 카불에서 그 동안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 민간인과 그들의 가족을 탈출시킨 정부의 결정과 실행은 국제사회에서의 연대감과 책임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작전을 지켜보면서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극장 관객 300만을 기록하며 장기간 상영에 들어간 류승완 감독의 영화 <모가디슈>(逃出摩加迪休, Escape from Mogadishu; 2021)가 자연스레 떠올랐다.

운명 같은 인연

"자동차 한 대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사막을 질주하는 이미지에서 출발했다." 2년 전, 류 감독이 속한 제작사 외유내강(內柔外剛 Filmmaker R&K)이 제작한 재난 영화 <엑시트>(極限逃生, EXIT; 2019)의 시사회에서 잠깐 만났을 때 류 감독이 던진 말이다. 전작 <군함도>(軍艦島, The Battleship Island; 2017) 이후 와신상담하던 그가 자신의 열한 번째 장편영화로 <모가디슈>를 막 결정했던 즈음이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이라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날의 짧은 대화에서 그가 어떤 배경과 분위기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 두 가지를 얻었다. 그것은 실화를 재구성한다는 것과 남북한 인물들이 총알 세례를 뚫고 함께 사막을 질주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 무척 궁금했고, 극장 객석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까지 2년이 걸렸다.

<모가디슈>의 배경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에 기반한다. 1990년 12월 30일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에서 바레 장군의 장기 독재를 거부하는 시위가 쿠데타를 불러 일으키며 내전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 남북한 대사관이 동시에 주재하며 상호 비난과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모가디슈에서 두 대사관 직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혼란의 도시를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류 감독이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던 이 사건을 스크린에 펼쳐내야겠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서로 대치 중이던 남북한의 외교관들이 제3국에서, 그것도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나란히 분투한 사건에서 단순한 흥미 이상의 어떤 감동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류 감독은 어느 날 자신의 사무실에 놀러온 후배로부터 1991년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다. <신과 함께>(與神同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시리즈를 제작한 텍스터 스튜디오가 영화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베테랑>(棘手警探, Veteran; 2015)의 후반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로부터 두어 해가 지난 뒤 텍스터 스튜디오가 그에게 연출 제안을 해 왔다. 류 감독은 "실화가 궁금해 당시 언론 보도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너무 극적인 이야기라 누가 봤든 잘 만들면 좋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감독과 영화는 그렇게 '운명처럼' 만났다.

그가 이 사건에 매료된 건 무엇보다도 '함께



2021년 7월 개봉한 <모가디슈>는 1990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힘을 합쳐 혼란의 도시를 함께 탈출한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이다. "자동차 한 대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사막을 질주하는 이미지에서 출발했다"는 류승완 감독의 말처럼 4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탄 양측 외교관과 그 가족들의 긴박한 탈출 장면이 영화의 백미이다. 소말리아와 풍경이 비슷한 모로코 예사우이라서 거의 모든 장면을 CG 없이 실제로 촬영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탈출한 남북한 외교관들이 특수 부대원이나 첩보 요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극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서스펜스가 흥미진진했고, 종전에 영화를 만들던 방식과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인 원동력이었다"는 게 류 감독의 설명이다. 그는 실화를 다시 취재해 영화로 재구성했다.

냉전 속 뜨거운 감동

영화는 1990년 12월 초부터 내전이 시작된 12월 30일을 거쳐 남과 북의 외교관들이 모가디슈를 벗어나는 1991년 1월 12일까지 약 한 달 남짓한 시간을 다룬다. 류 감독은 역사적 사실의 배경과 진전, 그리고 결말을 충실히 끌어오되 캐릭터와 사건의 디테일을 영화적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그것은 그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작업이기도 하다.

류 감독은 "그 기간은 소말리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급변하던 시기라 이 격동적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대한민국 대사관 관저에서 12일을 함께 보냈는데 그 기간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채워넣는 게 관건"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영화에서는 크게 두 개의 전쟁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교차하며 전개된다. 장중한 아프리카 풍 음악을 배경으로 바다에서 바라보는 모가디슈 풍경—이제껏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오프닝 시퀀스에 이어지는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남북 간의 외교전이 펼쳐진다.

남북한 대사들은 앞다퉀 대통령, 장관 등 소말리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치열하게 로비를 벌인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고, 나라에 국격이 있듯이 외교에도 격조가 있다"지만, 각기 유엔 가입을 위한 회원국의 표만 끌어올 수 있다면 아슬아슬한 공작도 서슴지 않는다. 당시 냉전 말기에 힘의 우위에 있었던 건 영화 속 북한 대사의 말처럼 "남조선보다 20년이나 앞서서 아프리카에 기반을 닦은" 북한이다. 남한 대사는 북한 대사가 처놓은 덫에 걸려들어 번번이 허탕을 친다.

영화의 전반부는 주요 캐릭터들을 꼼꼼하게 구축하는 동시에 소말리아 내전이 진행되는 과정을 공들여 보여준다. 그 의도를 류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다.

(다음호 계속)

김성훈 (Kim Seong-hoon 金勳)
씨네21 기자 (Reporter, CINE21)
(Koreana 잡지, 겨울2021)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그중 그림대회에 가장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다양한 기법과 장르로 700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참가자들의 지역 분포 또한 주목할 만했는데 올해에는 돌린스크, 흠스크, 아나와, 마카로브, 스미르니흐,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포로나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노글리키,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티몹스코예,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펼쳤다.

Гран-при "Чеховианы" получили юные поронайцы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Чеховианы"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огласили долгожда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детско-юношеских конкурсов. В этом году около 1 тысячи юных участников и более 400 педагогов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соревновались за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Мероприятие открылось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ы Лаврик. Она отметила важность "Чеховианы" для региона и вручила кубок гран-при победителю – детской школе искусств Поронайска.

Всего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о отмечено 44 победителя, из них 22 номинанта, награжденных специальными призами жюри.

В этом году "Чеховианы" исполнилось 25 лет и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актически со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школьники и педагоги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ах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чтения "Читай Чехова", инсценировок "Герои Чехова на школьной сцене", рисунков "По страницам чехов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 турнире по настоль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ой игре "Острова Сокровищ".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собрал конкурс рисунков — более семисот работ было прислано в разных техниках и жанрах.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географию выступающих. В этом году свои таланты проявили ребята и их педагоги из Долин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Макаров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Курильского,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общает музей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일주일 만에 7명의 사할린 주민 진드기에 물려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만에 사할린 전역에서 주민 7명이 진드기에 물려 의료시설을 방문했다.

진드기에게 물린 사례가 흠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코르사코브 지역,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접수되었다.

진드기에게 물린 경우 의료시설의 실험실에서 보렐리아균, 뇌염균, 아나플라즈마증, 단핵구 에를리키아증 발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검사는 '사할린주 위생 전염병센터(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체호브 거리 28-а, 전화 문의: (4242) 46-03-38.)'에서 진행된다.

채집한 진드기는 살아있는 상태나 손상되지 않도록 분석을 위해 용기 또는 깨끗하고 건조한 유리병에 담고, 축축한 솜을 안에 넣어 실험실로 가지고 와야 한다. 이는 3일 이내로 해야 하며, 용기 속 진드기는 섭씨 4도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Клещи покусали семерых сахалинцев за неделю

За неделю с 18 по 24 апреля с укусами клещей обратились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 Сахалина семь человек.

Обращения 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Холм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а также в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стровитяне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после укуса клеща необходимо сдать в лабораторию на проверку наличия возбудителей боррелиоза, энцефалита, гранулоцитарного анаплазмоза и моноцитарного эрлихиоза.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занимается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28-а, телефон (4242) 46-03-38.

Клеща в лабораторию необходимо доставить живым или хотя бы не поврежденным, в контейнерах для анализов, либо в чистых и сухих стеклянных банках. Внутрь положить кусочек влажной ваты. Сделать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и при этом клеща необходимо хранить в холодильнике при температуре +4 градуса Цельси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